CONTENTS

대청호 소식
2021 1+2 vol.127

2 이사장 신년사

4 부이사장 신년인사

6 대청호 가족들의 신년인사

9 대청호와 만난 사람들 72 신언석 천안아산네트워크 대표

14 대청호 마을 스토리텔링 18
충북 옥천군 군북면 막지리 손호연(73) 이장 인터뷰

18 사업보고 - 회인천 유역 거버넌스 및 도랑살리기

22 회인면 주민의 이야기

24 정책&이슈

27 사업보고 - 대청호유역하천센터
서화천 유역 수질개선 거버넌스
지역네트워크

38 대청호 뉴스&뉴스

39 대청이가 알려주는 '대청호가족' 소식

40 대청호와 함께하는 단체들

대청호소식 vol.127

발행일 2021. 2. 1
발행인 최병욱
발행처 (사)대청호보전운동본부
편집인 이건희
사무처 이건희, 임정미, 김재곤
대청호유역하천센터 이강혁
주 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청로 618-136 대청댐물문화관 2층
전 화 042) 930-7340~1
전 송 042) 930-7342
홈페이지 www.daecheong.or.kr
편집·인쇄 월간토마토
대전광역시 중구 대전천동로 574 2층
042) 320-7151

충북 옥천군 군북면 막지리에서 바라본 겨울 대청호의 모습. 막지리는 배로 이동하면 금방 도착하지만 차로 가면 오래 걸리는 두메산골 오지다보니 육지의 섬 막지도라고 불린다. 대청호 건설로 삶의 터전이 수몰된 주민들은 그동안 여러 애환을 겪으며 살아왔다. 대청호와 인접한 마을 주민들과의 교류가 더 많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관련 지면 14쪽)

글 **최병욱** 대청호보전운동본부 8대 이사장 / 한밭대학교 총장

참여와 협력으로 대청호의 새로운 희망을 만듭시다!

다사다난했던 2020년을 뒤로 하고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는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경험해보지 못한 혼란을 겪었고 이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코로나19로 겪어보지 못한 고통들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신축년 새해에는 코로나19가 종식되어 회원 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고, 뜻하시는 일들을 다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대청호유역의 물 환경이 한결 나아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대청호보전운동본부 가족 여러분!

대청호는 41년째 대전·충청권 400만여 명의 생명수로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물의 소중함과 자연생태의 아름다움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대청호를 있는 그대로 보전하고 수질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대청호를 활용하는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지난해 우리들은 역사상 최장기간의 장마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기후변화가 가져오는 지구환경문제는 이제 더 이상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들의 삶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긴 장마는 더 늦기 전에 우리가 환경을 보호해야 하는 필요성을 절실히 실감하게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대청호보전운동본부 가족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대청호보전운동본부는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다양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자 대청호 상류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거버넌스 연대체인만큼 민관협력을 더 높은 수준으로 이끌어내기 위하여 진심을 담아 활동하였습니다.

지난 해 우리 운동본부는 대청호로 직유입되는 하천을 중심으로 소유역협의체 구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서화천과 회인천 유역에서 주민참여형 거버넌스가 구축되었고 주민들과 다양한 실천활동을 펼쳤습니다. 또한 각 지역네트워크의 경우 지역의 주요 하천에서 소유역 협의체를 구축하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120여명의 하천감시단이 활동하고 있는 대청호유역하천센터에서도 주기적인 하천감시조사활동, 주민실천활동을 성과적으로 펼쳤습니다.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실천활동이 활발히 전개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펼쳐왔습니다.

신축년 새해에는 지난해의 성과를 기반으로 모든 사업을 더 열심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여기에는 대청호 가족 여러분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맑은 대청호를 보전하고 주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대청호 가족 여러분이 서로 힘을 합치고 함께 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사람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지는 곳, 상하류 주민들이 화합하는 곳, 행정과 민간이 자유롭게 소통하는 곳, 이론과 실천이 조화로운 곳, 비판과 주장을 포용하는 곳, 그리고 사랑과 배려가 넘치는 공간으로서의 대청호보전운동본부가 되도록 열심히 힘쓰겠습니다.

대청호보전운동본부 가족 여러분!

이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을 열어갈 2021년의 새날이 밝았습니다.

함께 손을 맞잡으면서 올 한 해를 감동의 해로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들의 앞날에 건강과 만사형통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글 **김세환** 부이사장 / K-water 금강유역본부장

대청호의 건강성 회복과 발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대청호보전운동본부 가족 여러분, 신축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 모두에게 만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2020년은 기후위기 현실화와 물재해로 인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 해이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네트워크 및 거버넌스 활동을 포함한 모든 활동이 언택트화 되어 일상의 소중함을 깨달았던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대청호보전운동본부 가족 여러분의 끊임없는 노력과 단합 덕분에 450만여 명의 식수를 담당하는 대청호의 수질을 보전할 수 있었습니다.

새해 신축년에도 근면 성실하고 우직함을 상징하는 소와 같이 대청호 가족 여러분과 힘을 합쳐 사람과 자연이 더욱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대청호의 건강성 회복과 발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김종원** 부이사장 / 대전충남생명의숲 공동대표

황소의 뚝심으로 함께 합시다!

대청호보전운동본부 가족여러분, 2021년 신축년 하얀소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경자년은 어둠에서 질곡의 경험하지 못한 아픔의 시간, 코로나19와 더불어 언택트의 삶이 새로운 시대의 서곡(序曲)이었다면 신축년은 황소의 뚝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미소 짓는 질주의 한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언제나 대청호 환경과 물 사랑을 실천하시는 대청호보전운동본부 가족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에 화평과 형통의 축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가지 않는 길, 가야할 길, 무엇보다 다음세대를 위한 공존, 공생의 함께 가야할 길을 한 결 같이 달려온 대청호보존운동본부가 대응에서 공생으로 새로운 원칙과 명분을 갖고 생명의 숲, 공존의 숲으로 역할모델을 고민할 때라 생각됩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온난화로 환경보존과 개발의 틈새에서 이제 기후변화의 환경문제는 불가항력적인 공존의 숲으로, 지속가능한 생명의 숲을 위해 우리에게 두 가지 과제를 주었지요. 대응에서 저감(Mitigation)과 적응(Adaptation)인데 적응을 넘어 함께하는 저감으로 공존공생의 미션을 부여받았다고 생각합니다.

2050 탄소 중립 선언과 한국형 산림뉴딜 K-Forest시대를 준비하며 고통과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을 준 코로나19가 제시한 방향설정 한 가지는 과밀한 인간환경에 대한 경고일 것입니다. 오늘의 현실은 성장의 위기, 갈등의 위기, 환경의 위기로써 함께하는 거시적 안목의 새로운 합의, 생태적 뉴딜이 해법이라 사료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대청호보전운동본부 가족여러분, 황소의 뚝심으로 우리 함께 합시다.

다시 한 번 신축년 새해,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여러분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평강의 축복을 기원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같이 갑시다

글 **한경수** 대청호유역하천센터 대표

대청호유역 하천감시단 그리고 대청호보전운동본부 활동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로나19는 겨울 날씨를 더욱 춥게 만드나 봅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작년 한해는 코로나19로 제한적인 상황속에서도 대청호보전을 위해 헌신적인 활동을 우리 모두가 해 왔습니다. 모두에게 박수를 보냅시다. 여러분의 활동과 잦은 비로 인해서 인지 이곳 영동에는 모래톱과 자갈밭 등이 여러 군데 생겨났습니다. 몇 년 전 규조류, 이끼류가 강 바닥을 뒤덮었는데 근래에는 많이 없어지고 물이 맑아진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민관이 각자의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누구만 하는 정화활동이 아니라 주민참여를 이끌어 누구나 하는 실천운동으로 만들어 갑시다. 무엇보다 활동가 여러분의 모범적 역할이 아름답고 자랑스럽습니다.

어려운 코로나19 환경 속에서 올 한해도 삶의 터전을 보전하는 일에 즐거운 마음으로 같이 갑시다. 파이팅~

성실하고 우직한 마음으로

글 **배병욱**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 / 대전대 환경공학과 교수

희망찬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성실하고 우직한 소의 기상을 받아 새해에는 뜻하시는 모든 것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정책연구위원회에서는 물관리기본법의 시행으로 인한 제도적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소유역거버넌스 활동이 대청호보전운동본부의 새로운 브랜드로 정착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대청호보전운동본부의 창립 20주년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하면서 의미 있는 도전이었던 것으로 자평하고 있습니다.

새해에도 거버넌스 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성실하고 우직한 마음으로 함께 하기를 기대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은근과 끈기 있게

글 **한중열** 옥천네트워크 대표

2020년은 유난히도 힘든 한해를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준 나라였습니다. 이렇게 우리 국민들은 매번의 위기 때마다 항상 단합된 무엇인가를 보여주었던 것 같고, 그런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위기에서 무언가를 발휘하는 우리! 그 속에 우리 대청호 식구들도 함께 있습니다. 환경을 위한다는 것은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은 자식을 그리고 후손을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들 모두에겐 고마운 세 가지가 있답니다. 절대로 없어서는 아니 될 세 가지랍니다. 1. 태양 2. 공기 3. 물이지요. 여러분들은 아마도 고마운 줄을 알면서도 평소에는 까맣게 잊고 살고 있지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자연환경을 살리자는 마음으로 모인 사람들입니다.

항상 초심으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은근과 끈기 있게~~~

환경을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글 **이재용** 대전 하천감시단 대표 / 대전 동구 주산동 통장

안녕하십니까? 다년간 하천감시 활동을 하면서 저의 환경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뀌었고 자부심 또한 생깁니다. 코로나19 역시 지구 환경 변화에서 비롯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주변 대청호 환경을 생각하면서 주변에 서식하는 어류와 곤충, 동식물을 생명을 살리는 젖줄이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우리 스스로가 보호해야 한다는 시민의식이 필요합니다.

신축년 새해에도 열심히 하천감시 활동을 하면서 진정한 환경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거창하게 지구를 걱정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내 주변 작은 것들부터 살리고 싶습니다.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더 큰 초록울림이 되도록

글 **이상호** 천안아산네트워크 팀장

2020년 한해도 지역 주민들과 시민들의 지지와 성원으로 계획했던 크고 작은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였고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천안아산네트워크에 보내주시는 수많은 지지와 응원이 더 큰 초록울림으로 전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모두 답답하고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지만 새해에는 무엇보다 환경의제가 우리 시민들 생활 속에 더 각인되고 우선시되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해 봅니다.

정말로 행복한 나날이란 멋지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날이 아니라… 진주 알들이 하나하나 한 줄로 꿰어지듯이 소박하고 자잘한 기쁨들이 조용히 이어지는 날들인 것 같습니다.

가족들과 따뜻하고 안전한 날들 되시길 기원하며 새해에는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한 한 해 되세요

글 **김인영** 영동네트워크 팀장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만 같던 2020년도가 지나고 어느덧 2021년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많은 활동의 제약과 바이러스에 대한 불안감으로 보낸 작년과는 달리 얼른 코로나 19가 종식되어 자유롭고 건강한 한해가 되기를 간절하게 바라며 저희 영동네트워크는 미뤄졌던 사업들을 차근히 하나씩 진행해 나아가는 한 해를 기대해봅니다.

모두들 작년에 못 다한 일 다 이루시길 바라며 행복하고 건강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글 **이강혁** 대청호유역하천센터 국장

사람, 사회, 자연을 보듬으며 걸어온 길

신언석 천안아산네트워크 대표 인터뷰

대청호와 만난 사람들은 다양한 지역과 분야, 단체에서 대청호 보전을 위해 활동하시거나 소중한 힘을 보태고 계신 분을 소개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창립초기부터 현재까지 함께 하고 계신 천안아산네트워크 신언석(69) 대표를 소개하고자 한다.

신언석 대표 약력

- 온양장로교회 담임목사(현)
-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이사(현), 부이사장(전)
-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현)
-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이사(현), 이사장(전)
- 충남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선교위원회 위원장(전)
- 아산 평화의 소녀상 건립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전)
- 아산 기독교연합회 회장(전)

지난 1월 중순에 충남 아산의 온양장로교회에서 신언석 대표를 만나 깊은 이야기를 나눴다.

별을 보며 꿈꿔왔던 시절

- 그동안 살아오신 대략의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나와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은 거의 누구나 비슷한 여건에서 살아왔다. 고향은 충남 서천이다. 서천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마쳤다. 3년 전에 미국에 다녀온 적이 있다. 네바다주, 유타주 등의 사막지역을 관광한 적이 있는데 그곳에서 정말 몇 십 년 만에 하늘에 별이 저렇게 많다는 것을 다시 느껴보았다. 그 때 하늘 보며 별을 즐기면서 "야! 우리 어렸을 때 이랬는데" 하며 나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기도 했다. 어렸을 때도 마당에 멍석 깔고 누워서 하늘의 수많은 별을 보며 놀았다. 그런 시골 동네에서 살았다. 아버지도 역시 농부셨고 농사짓는 일에 익숙했다. 5형제 중 막내인데 마지막까지 아버지 농사짓는 것을 돕다가 서울로 대학을 가면서 농촌을 떠나게 되었다.

대학은 목회자의 뜻을 품고 신학대학으로 갔다. 그래도 농사꾼의 자식이다 보니 농사에 대한, 농촌에 대한 애정이 깊었다. 한국신학대학(현재의 한신대학교)을 마치고 나서도 서울 등 대도시에서 목회활동을 할 생각은 없었다.

처음 목회활동을 한 곳은 옛날에는 이리라고 불렸는데 전북 익산이었다. 익산에서 13년간 목회활동을 하다가 온양(현재 아산시)으로 와서 지금까지 딱 30년이 되었다."

천안아산 시민단체에서의 큰 역할

- 지역의 시민단체의 활동에 대해 여쭤 보았다.

"시민단체 활동을 하게 된 것은 한국기독교장로회의 신학적인 영향, 일제시대부터 혹은 그 이전부터 선교사들이 우리들에게 준 영향이 작용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현 차수철 광덕산환경교육센터장 등 몇 분들과 함께 뜻을 모아 1998년에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을 창립하였다. 창립 초기부터 의장을 맡게 되었는데 어쩌다 보니 현재까지 공동의장을 맡고 있다.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이 충남지역에서 차지하고 있는 역할이 크다보니 자연스럽게 충남환경운동연합 의장도 맡기도 하였다. 또한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이 대청호보전운동본부에 참여하다보니 자연스럽게 대청호보전운동본부의 이사와 부이사장의 역할까지 하게 되었다.

그리고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의 창립을 위해서도 노력하였다. 이사장을 역임하였고 현재는 이사로 있다. 1990년대 후반 들어 충남지역의 많은 중소기업들이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을 고용하게 되었다. 2000년 당시 아산에는 약 2000명 가량의 외국인들이 생활하고 있었다. 그러나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임금체불, 산업재해, 폭행, 질병 등 갖가지 문제에 대해 마땅히 이들을 도울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 이를 알게 된 목회자들이 지식인, 종교인, YMCA 등 시민단체들과 함께 외국인 노동자을 위한 지원단체를

모색하였고 2001년 3월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창립하였다.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의 노동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아산지역에는 산업단지가 많은데 노동자의 노동인권을 향상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였고, 충남기독교교회협의회의 인권선교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지금은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유성기업같이 해결되지 않은 곳이 많아서 안타깝다.

그리고 아산 평화의 소녀상 건립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12월 일본과 굴욕적인 협상을 하였을 때 아산지역에서도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하자는 움직임이 있었고 추진위원회를 만들었다. 그 성과로 신정호수 이순신 동상 앞에 평화의 소녀상이 건립되었다.

시민단체 활동은 물론이고 정치나 종교 등 모든 것에서 중요한 것이 민심과 함께 가는 것이다. 민심은 천심이고 민심과 동떨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최근 일부 교회가 방역지침을 어기면서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 심히 우려스럽다. 우리나라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방역을 위해 단지 방법을 달리해달라는 것인데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소탐대실 하지 말고 더 크게 보아야 한다. 지금 일부가 미꾸라지 몇 마리가 물을 흐리듯 하고 있는 상황이 너무 답답하고 안타깝다."

4대강 사업이 자연에 준 아픔을 느끼며…

- 대청호보전운동본부에 대한 생각을 여쭤 보았다.

"천안아산지역의 대표로서 창립시기부터 대청호보전운동본부의 이사를 맡고 한 때는 부이사장을 역임하기도 하였지만 중간에 한동안 참여를 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이명박 정부에서 국민들의 반대여론에도 4대강 사업을 강행할 때 많은 실망감, 분노 등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당시 22조원이라는 엄청난 혈세를 투입하면서

도 국민들의 정서를 고려하거나 합의를 해가면서 4대강 사업을 추진한 것이 아니었고 정권의 위상과 권력을 앞세워서 밀어붙인 것이었다. 정부가 시키니까 수자원공사가 주축으로 사업을 추진했겠지만 수자원공사에 대한 실망도 컸다. 그런 가운데 대청호보전운동본부에 참여하는 것에 의미를 찾지 못했었다.

나는 시민단체 대표이기도 하지만 성직자이다. 단순히 시민단체 활동을 한다는 것 보다는 절대자 하나님이 창조한 대자연을 어떻게 하면 관리를 잘하며 본래의 모습대로 보전을 할 수 있을까, 소위 에덴의 동산같이 회복할 수 있을까 하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고백이다. 이상주의자라고 비판받을 수도 있겠다. 신앙고백 차원에서 이 일을 시작했고 모든 종교인들이 다 갖추어야 하는 것을 단지 나는 더 적극적인 활동을 한다는 측면에서 시민단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대청호도 마찬가지다. 충청권의 생명의 젖줄인데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관리하고 유지하고 보호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참여했다. 그런데 4대강 사업으로 매우 마음이 아팠다. 그러다 보니 참여하기가 어려웠다. 당연히 필요한 일임에도 피했다. 지금 돌이켜 보면 그럼에도 참여를 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 그 이후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이 크다보니 다시 참여하게 되었다. 참여를 안했던 것이 피하려 한 것으로 느껴져 약간의 죄의식도 있다.

대청호보전운동본부는 민관협력의 모범적인 사례이다. 대청호 보전운동은 정말로 꼭 필요한 운동이고 기분 좋게 함께하고 있다.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모범사례를 찾기 어렵다. 아마 세계적으로도 모범사례가 아닐까 한다. 시민단체, 지자체, 수자원공사 등 그야말로 민관이 함께 협력하여 우리 시민들이 먹는 물, 상수원인 대청호를 잘 관리하는 것은 정말로 필요한 일이다. 앞으로도 오랫동안 민관이 잘 협력하며 더 많은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

모두가 환경을 위해 힘쓰는 사회가 되길…

- 기후변화 등 환경현안에 대해 들어 보았다.

"최근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금강의 보 처리 문제에 대해 결정한 것을 보니 책임회피 비슷한 미흡한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기회에 이번 정부에서 보 철거시기 등을 확실하게 결정을 했어도 무리가 없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은 매우 안타깝다. 일부 정치적 상황과 지역의 일부 농민들의 상황을 고려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먼 미래를 향해서 거시적으로 봤어야 했는데 작은 문제에 휩싸여서 제대로 된 결정을 하지 못한 것 같아 많이 아쉽다. 금강이 전국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빠르게 보 철거 등의 조치가 실행되길 바란다.

그럼에도 1980년대 후반에는 환경문제에 대한 얘기만 해도 잡혀가기도 하였는데 지금은 국가적인 문제로 된 것을 보면 그동안 우리가 활동한 것이 헛수고는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

몇 년 전부터 우리 교회에서는 무조건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선포하였고 지금까지 잘 지켜오고 있다. 작은 실천부터 해보자고 하였고 아이들 교육에도 환경문제를 포함하여 하고 있다. 그리고 교회 앞에 있는 온양천 정화활동도 하고 잘 가꾸어 교회 신도들에게 물 환경교육의 장이 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요즘 모두들 느끼는 것이지만 지금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해서 머지않은 미래에 지구에 무슨 일이 터지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한다. 다음세대를 위해 작은 실천부터 하자고 얘기하고 노력하고 있지만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함께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모쪼록 환경이 더 우선시 되고 환경을 위해 노력하는 사회가 되도록 함께 힘쓰자."

다른 때보다 2배 가까운 시간동안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그 만큼 열정적이셨고 공감하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동안 사람과 사회, 자연을 보듬으며 살아온 큰 길, 큰 어른의 자취와 발자욱을 느낄 수 있었다. 앞으로 더 자주 뵙고 인사드리고 싶어졌다.

글 **박병춘** 대전대신고등학교 교사

“육지 속에 섬, 막지리는 내 인생의 종착역이랍니다.”

충북 옥천군 군북면 막지리 손호연(73) 이장 인터뷰

막지리 이장님과 인터뷰 약속 날짜를 잡았다. 대설이 내렸다. 소정리에서 배를 타고 가는 길도 있었으나 뱃길마저 얼었다. 막지리에 들어갈 수 없어 인터뷰 날짜를 다시 잡았다. 사흘 뒤, 지난 1월 20일 오전, 네비에 주소를 찍고 막지리로 향했다. 네비는 소정리 초입을 막지리로 알려주었고, 이장님과 소통하여 답양막지길 404번지에 도착했다. 두메산골과 ‘오지(奧地)’는 동의어다. 막지리는 두메산골 오지였다.

마을 정자에 이르자 손호연 이장님(73)께서 반갑게 맞아주셨다. 정자에서 마을회관까지 걸었다. 고급 펜스에 넓은 골목이 오지 마을 골목치곤 이색적이었다. 물감 벽화가 아니라 모자이크 타일 벽화가 특히 눈에 띄었다. 손 이장님과 마을 주민들이 예산을 지원받아 마을을 꾸민 것이다.

이장님과 막지(莫只)마을 유래비를 찾았다. 막지 마을은 충북 옥천군 군북면 관내이다. 막지라 부르게 된 것은 이 마을이 강(江)가에 위치하고 있어 갯밭이 많아 보리 농사를 많이 지었는데, 조선시대 문신인 우암 송시열 선생께서 이곳을 지나다가 보리가 많은 것을 보고, ‘맥계(脈溪)’라고 이름 지은 것이 음운 변화로 ‘맥기’라 불리어 오다, 마을 이름을 한자화하면서 ‘막지(莫只)라 쓰고 있다. 자연 마을은 맥기 장고개가 있으며, 1970년대에는 120여호 750여 명이 살았었다. 1980년대 초에 대청댐 담수로 마을이 물에 잠기어 수몰선 위로 옮겨 맥기에 20여 호, 장고개에 10여 호가 살고 있으며 인심 좋고 살기 좋은 마을로 가꾸어, 후손에 길이길이 물려주고, 충효인예의 고장으로 발전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막지리는 대청호 담수 전만해도 이 근방에서 가장 큰 동네로 명성을 날렸지만 담수 이후, 마을이 잠기면서 일부 원주민만 남고 전국으로 뿔뿔이 흩어져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손 이장은 막지리에 살다가 고등학교 졸업 후 상경하여 48년 동안 건축업에 종사했다. 치열하게 살아오다 건강이 좋지 않아 잠시 고향으로 내려와 1,2년 정도 휴식을 취하기로 했다. 여기부터 새로운 시작이었다. 고향의 모습은 너무나 좋지 않았다. 지난 40여 년 동안 진입로도 마을 골목도 엉망이었다. 손 이장은 마을 개혁을 다짐했다. 행정기관과 소통했고, 예산을 따오며 3년 동안 동네를 변화시켰다. 우거진 숲을 잔디 광장으로 조성했다. 마을 진입로는 현재 2차선으로 확장 공사 중이다. 2019년에는 충청북도에서 풍경 마을 만들기 사업을 공모했다. 손 이장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막지리가 선정되어 마을 담벼락 조성 및 마을 꾸미기가 실현됐다.

2017년도에 폐가를 구매하여 맥기 사랑방 쉼터도 만들었다. 출향민을 위한 공간이다. 막지리에는 출향민들의 조상을 모신 산소가 200기 이상 남아 있다. 조상을 섬기는 묘소 참배 때 출향민들이 오면 하루 정도 묵고 갈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한 것이다. 마을 일부에 꽃동산 꽃길도 조성했다. 출향민들의 만족도가 높아 다행이라며 손 이장은 기뻐했다.

막지리는 풍악(농악)으로 유명했다. 김덕수 사물놀이패의 핵심인 김덕수의 고향이기도 하다. 김덕수의 작은 아버지들도 농악에 소질이 있어 1960~70년대는 충북 대회에서 대상을 수차례 받을 정도였다. 현재는 주민 수가 적어 그 소중한 농악기를 이용하지 못하고, 출향민들이 고향

에 오면 가끔 농악을 울린다. 출향민들과 원주민들이 매년 만남의 날 행사를 진행하여 수몰 이후 25회를 진행했다. 아쉽게도 출향민 1,2세대는 많이 돌아가시고, 3,4세대들의 관심도가 떨어져 2018년도에 행사가 중단됐다. 내년에는 26회 행사가 이어지기를 손 이장은 기대하고 있다.

막지리 주민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농토 85%가 수장된 가운데, 산골짜기 일부로 농사를 지어 자급자족하며 산다. 고추, 감자, 들깨, 콩 등 농산물을 생산하여 자식들과 나누어 먹는 정도이고 따로 수입은 없다. 손 이장은 공동 생산 농사를 지어 마을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작년에 마을 인근 야산을 개발해서 개복숭아 나무를 500주 정도 심었다. 올해부터는 복숭아를 따서 효소를 담아 마을 수입에 보탬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봄이 되면 복숭아 꽃이 장관을 이뤄 좋은 풍경에 큰 몫을 하고 있다.

손 이장은 대청호보전운동본부와의 인연을 무척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2020년도 둠벙 사업도 매우 고마운 일이다. 막지리가 대청호 상류지역이다 보니 수질 정화는 필수다. 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이 절실했는데, 사업비가 많이 들다 보니 엄두를 못냈다. 가정 오폐수가 댐으로 들어가는 일은 심각한 환경 문제다. 그런데 대청호보전운동본부가 도움을 주었다. 활동가들이 월 1회 방문하여 공동체 화합에 기여했다. 특히 임정미 국장의 노고에 찬사를 거듭했다. 활동가들은 말이 아닌 실천으로 마을 사람들과 함께 움직였다. 마을 오폐수가 걸러질 수 있도록 마을 정자 앞에

작은 둠벙을 만들었다. 마을 주민과 어울려 교육을 진행하고 친환경 세제와 비누 만들었다. 쓰레기는 모두 담아서 자루에 넣어 배출한다. 일체 폐기물 소각도 없다. 이제는 주민들이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마을 자체로 합심하여 정화하는 데 노력한다.

대청호 담수 전 손 이장의 어릴 때 추억도 들어보았다. 금강은 속이 다 보일 정도로 깨끗했다. 자갈밭이 4키로 정도 형성되었고 밀밭, 보리밭이 대단했다. 그런 고향의 모습이 하루아침에 수몰된 것이다. 어릴 적에는 자갈밭, 청정수 금강에 가서 살다시피 했다. 인근 마을에서도 밤이 되면 마을 강가에 많이 모였다. 그 장엄했던 소나무, 참나무밭, 여러 마을과 배구 연습하고 시합하고 태권도에 농악을 하던 그 모든 소리와 공간이 수몰되어 손 이장은 안타까워했다.

애로 사항이 있다. 물만 보면 살짝 홧병이 생긴다. 막지리 마을에 식수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하수를 파도 물이 안 나오고 설령 나온다 해도

석회수다. 결국 마을에서 약 3키로 떨어진 계곡물을 물탱크에 받아먹는 중이다. 며칠 전 강추위 때는 계곡이 얼어서 물 공급이 중단되었고, 결국 군 살수차가 와서 공급했다. 대전, 청주 등 그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마을은 수장되었는데, 정작 마을 사람들은 상수도가 없어 너무나 억울하다. 손 이장은 이러한 어려움을 군에 건의하고 실현 가능하도록 노력 중이다.

속칭 맥기 자연 마을(막지리)에 21가구, 저 너머 장고개에 14가구, 총 35가구를 대표하는 손 이장은 올해로 5년 째 마을 발전을 위해 뛰고 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25분 중 가장 젊은 사람이 67세이고 최고령자는 89세다. 손 이장은 73세로서 아직은 젊다시며 웃음으로 화답했다.

손 이장은 자신의 고향 막지리를 더 예쁘게 만들고 싶다. 2016년도에 행복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진행하며 칡넝쿨을 제거하고 영산홍, 꽃잔디 등 꽃나무를 심었다. 맞은편 소정리에서 바라보면 마을 풍경이 더 예뻐졌다. 우선 주민 수를 늘려야 되는데, 건축법이 까다로워 집짓기가 어렵다. 작게나마 집을 짓게 하여 출향민들이 고향에 돌아올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바라고 있다.

인터뷰 끝자락에 손 이장은 강조했다. 막지리, 소정리 등 대청호 주요 공간마다 몰상식한 낚시꾼들 때문에 쓰레기 몸살을 앓고 있어 사태 해결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그만큼 청정 오지 마을로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은 손 이장의 의지가 강렬하다.

이번 인터뷰로 대청호보전운동본부의 노력을 재확인했다. 진정성 넘치는 활동가들이 마을 주민과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기에 대청호 주변 마을이 온전한 생태 마을로 지속 가능한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

글 김재곤 대청호보전운동본부 팀장

보은 회인면 주민들과 함께 많은 성과를 일궜던 한 해

코로나 19로 시작해 코로나 19로 끝난 2020년이었습니다. 제가 대청호보전운동본부 활동가로서 시작한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회인천 수질개선 거버넌스와 우리마을 도랑살리기 사업을 회인면 마을 주민분들과 함께하였습니다. 2020년 회인천거버넌스와 우리마을 도랑살리기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 보고해드리겠습니다.

회인천 유역 주민참여형 수질개선 거버넌스 사업

회인천 유역 수질개선 거버넌스는 지난 2019년 거버넌스를 구성한 것에 이어서 2020년에도 계속 되었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 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거버넌스 운영위원회는 3번의 회의와 사업보고회를 진행했습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 확산이 줄었던 2차 회의를 제외하고는 모두 서면회의를 하였고 거버넌스 운영위원 중 회인면에 거주하는 운영위원분들은 1:1 대면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특히 2020년에는 회인천과 대청호가 만나는 지역인 용곡1리, 신대리, 죽암2리 이장님께서 거버넌스 운영위원으로 참석하여 장마철 대청호 쓰레기 유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동리에서는 이장님의 요청으로 K-water 금강유역본부 물환경센터에서 마을 하천 수질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수질검사를 통해 마을 하천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기도 했습니다.

회인천 유역 수질개선 거버넌스 활동으로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회인천 유역 가축분뇨실태 조사 및 비가림 설치를 진행했습니다. 가축분뇨 방치실태 조사는 2019년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회인천 수질개선 거버넌스 모니터링단과 사무처에서 함께 조사했습니다. 총 57곳의 가축분뇨 방치지역을 확인하였고 10곳의 비가림 미설치 지역과 부실설치 지역에 비가림 설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축분주를 직접 만난 곳에는 계도활동을 통해 방치된 가축분뇨를 소멸하거나 비가림 상태를 개선하였습니다. 마을 주민으로서 마을을 잘 아는 모니터링단원분들 덕분에 보다 자세하면서 세밀하게 조사를 할 수 있었고 비가림 설치 또한 수월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회인천 거버넌스 활동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을 꼽자면 바로 주민환경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대면 교육이 어려웠는데요. 그래서 마을주민분들이 수질환경의 중요성을 알고 함께 실천하도록 교육책자를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교육책자에는 회인천 거버넌스에 대한 소개, 대청호와 회인천의 중요성, 비점오염원에 대한 개념, 함께 실천할 사항 등의 내용을 넣어서 제작하였습니다. 마을 정화활동 또한 코로나 19로 인해 진행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2020년에는 마을 주민분들 의견을 수렴하여 추석이전 마을 정화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정화활동은 코로나 19로 인해 방역지침을 준수 해야해서 이전과는 다르게 방역지침에 따라 거리를 두고 진행하였습니다. 그러한 우여곡절에도 회인면 마을 주민분들은 적극적으로 정화활동에 참여해주었습니다. 이전에는 정화활동 이후에 모두 함께 식사를 하면서 마을 수질환경이나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듣는 시간이 있었지만 아쉽게도 2020년에는 코로나 19로 인해 식사 대신 떡을 개별 포장하여 음료와 함께 나누어 각자 먹는 것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대청호와 회인천이 만나는 마을인 회인면 용곡1리 마을 하천은 잡풀과 퇴적토가 쌓여 물의 흐름이 방해되고, 이로 인해 주변 수질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고 장마 시 범람의 위험이 있어 마을 사람들이 큰 고충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회인천 수질개선 거버넌스 운영위원회를 통해 용곡1리마을 도랑초목 제거 및 오염토 제거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천자체는 직강화 되어 있지만 하천내 사행으로 물길 조성하여 건천화를 방지하였습니다.

회인천 수질개선 거버넌스에서는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한 홍보활동도 하였습니다. 회인면 이장단협의회와 2차례 간담회를 하였고 주민자치위원회과도 간담회를 하여 비점오염원을 저감하는데 많은 협조를 부탁하며 주민대표분들의 다양한 의견도 청취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인면 25

개 마을에 가축분뇨 방지 및 분리수거 독려 현수막을 부착하였습니다. 거버넌스 운영위원회에서 나온 제안으로 회인천 유역 비점오염원 지도를 제작하였습니다. 비점오염원지도는 모니터링단과 본부 사무처 조사를 기반으로 회인천 유역 비점오염원 현황을 나타낸 지도서 앞으로 회인천 주변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기반이 될 자료가 되었습니다.

2020년 회인천 유역 수질개선 거버넌스 사업의 가장 핵심이라고 한다면 바로 모니터링단입니다. 회인천 유역을 21개 구간으로 나누어 담당 구역을 설정하였고, 회인면장님 및 각 마을 이장님 추천으로 주민 21명으로 구성하였으며 6월부터 11월까지 월 2회 모니터링을 진행하였습니다. 모니터링단 발대식을 통해 모니터링 교육을 하고 모니터링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총 4차례 회의를 통해서 각 담당 구역별로 비점오염원 및 수질 오염원 문제에 대한 파악을 할 수 있었으며 가축분뇨 방치상태 조사와 비점오염원 지도 제작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2021년 올해 회인천 수질개선 거버넌스는 작년에 이어서 담당 구역 마을 주민으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마철 이전 하천 초목제거 사업, 유역천과 지자체가 재원을 부담하고 지역민과 거버넌스가 인공습지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고민하고 있으며 회인천 우수유입 구간 물 웅덩이(둠벙) 조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낚시금지구역 설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021년은 회인천 유역에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는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을 도랑살리기 사업

마을의 여러 상징 중 하나가 마을을 가로지르는 도랑입니다. 마을 도랑들이 모여 하천을 이루고 하천이 모여 강을 이루는데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처럼 마을 도랑이 맑고 깨끗하게 유지되어야 하천과 강 수질 개선의 첫걸음입니다. 마을 도랑을 깨끗하고 맑게 개선하고자 보은군과 함께 도랑살리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회인천으로 유입되는 마을 도랑인 눌곡리, 송평1리, 고석리 마을 도랑살리기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눌곡리 도랑살리기 사업은 지난 2019년 신규로 시작해서 2020년에는 사후관리사업으로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2019년 사업에서 아쉬웠던 부분 부족했던 부분들을 보강해서 진행하였는데요. 새로이 당선되신 마을 이장님과 마을 분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2019년 복원 작업을 마을 도랑 정리와 마을에서 추가로 부탁한 물길정비 및 식재 보강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을에 재활용쓰레기를 정리하는 곳이 없어 이장님과 상의를 통해 적합한 장소에 비가림 분리수거함 설치를 하였고 2차례 도랑정화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9년 도랑살리기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쉬웠던 점을 보강하였고 이전보다 마을이 많이 깨끗해져 도랑살리기 운동효과를 보았습니다. 코로나 19로인해 주민교육을 대면교육이 아닌 교육책자를 통해 진행을 하였고 장마철 지나치게 많이 온 비로 인해 식재한 식물들이 유실되었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고석리 마을 도랑살리기 사업은 2020년 신규사업으로 새롭게 도랑살리기를 진행하였습니다. 고석리 마을은 마을 도랑 정비한지 오래된 지역으로 퇴적토와 농업잔재물 그리고 하류에 있는 잡풀들이 물의 흐름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랑 상류부 퇴적토 및 농업잔재물, 오염물을 제거하고 사행천 확보를 하고 여울을 조성하였습니다. 도랑 하류부에서는 하천주변 풀베기 및 쓰레기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을 내 쓰레기 투기지역을 정리하면서 꽃밭은 조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물의 흐름이 이전보다 원활해졌으며 수생식물 식재로 실질적인 수질개선 뿐만 아니라 미관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유제길 이장님과 마을 주민분들이 합심하여 정화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해주셔서 도랑살리기 사업이 수월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대청호 보전운동본부 정책연구위원이신 대전세종연구원 이재근 박사님의 도움으로 도랑살리기 사업을 진행한 고석리 마을 발전계획과 연계한 지속가능한 고석리 마을계획도 수립하여 2020년 보다 그 이후 2021년이 더욱 기대되는 마을로 변모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사후관리 사업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지난 2020년 여름 폭우로 인해 유실된 수생식물 보강하고 고석리 마을 기초계획을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송평1리 마을 도랑살리기 사업은 고석리와 마찬가지로 신규사업으로 새롭게 진행하였습니다. 송평1리 마을 도랑 퇴적토를 준설하고 도랑주변 풀베기 및 쓰레기정리, 쓰레기 투기장소 및 소각지역 정리를 하였으며 마을 주민분들과 함께 2차례 정화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정책위원인 대전충남시민환경연구소 최충식 소장님과 길복종 실장님의 도움으로 송평1리 마을 발전계획과 연계한 지속가능한 송평1리 마을 계획도 수립하였습니다. 수질검사 결과 도랑살리기 사업 전과 사업 후 수질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홍순보 이장님을 포함한 마을 주민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마을 수질개선과 환경보존을 위한 실천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비가림 분리수거장이 마을 내에 설치되어 예년보다 쓰레기 분리수거가 잘 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지난해 폭우로 인해 상류로부터 떠내려온 퇴적토 준설과 마을을 가로지르는 도랑이 있어 이 도랑 또한 정비하고 관리하는 방향으로 도랑살리기 운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글 **오희규** 회인천 유역 수질개선 거버넌스 모니터링단 / 보은군 회인면 송평1리 주민

대청호 보전운동에서 조그만 실천의 의미

신축년 새해를 맞이하였다.

삼십여 년의 직장 생활을 마치고 고향에 돌아온 지 삼년이 되는 해이다.

어머님이 맡아 오신 농사일을 이어받아 고향을 지킬 수 있음에 감사하며, 약간의 두려움 속에 귀농을 감행한지 두해를 보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주말마다 고향을 찾으려 노력했기에 귀향이 조금은 더 수월했는지도 모른다. 아마도 어릴 적부터 물고기 잡고 헤엄치며 놀던 깨끗한 마을 냇가와 뒷동산에 대한 추억을 그리며 살았기에 이제 때가 되어 돌아와야 할 곳에 서게 되었다는 설명이 맞을 것이다.

귀농하던 첫해, 농사일로 바쁘지만 마을 이장님의 '마을하천 주변 정리 작업이 있다'는 방송과 함께 무더위도 아랑곳 하지 않고 마을의 모든 분들이 나와 하천변 풀을 베고, 도로변 풀을 뽑고 꽃을 심던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다. 마을에서 제일 젊은 내가 솔선해야 함을 깨닫게 했다. 그 이후로 작업이 있는 날에는 빠짐없이 예초기를 메고 마을 하천변 제초작업을 즐겁게 참여했다.

이렇게 마을 분들이 마을 하천을 깨끗하게 가꾸려는 데는 대청호 상류지역으로 식수원을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음 또한 짐작할 수 있었다. 그 무렵 대청호보전운동본부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행복한 마을 만들기와 병행해 우리 마을 하천 살리기에 앞장서 헌신적으로 노력한 마을이장님과 대청호보전운동본부의 적극적인 지원활동이 좋은 효과를 내며 마을 분들을 단합하게 만든 원동력이라 생각하였다.

작년, 금강의 지류인 회인천 유역 모니터링단으로 추천받아 나름 열심히 활동을 하였다. 우리 마을과 하천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대청호를 깨끗하게 보전하는 출발선임을 알기에 작지만 소중한 역할을 보람으로 여겼다. 함께 모니터링단으로 활동한 분들도 같은 생각으로 임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제 마을앞 도로나 하천의 쓰레기가 눈에 띄면 치우는 습관이 생기고, 때론 경운기에 쓰레기 봉투를 싣고 이곳저곳을 다니며 쓰레기를 담는 내가 되기도 한다. 퇴비는 비가림을 해서 빗물에 오염수가 하천으로 흐르지 못하도록 하고, 쓰레기 소각 대신 종량제 봉투에 담아 분리수거가 되도록 한다. '마을하천 살리기를 위해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자'라는 구호가 늘 마을 앞을 지키고, 마을 이장님은 수시로 종량제 봉투를 마을 분들에게 배부하고 있다.

이런 마을 분들의 인식변화와 하천 살리기 실천에 참여하도록 이끈 힘은 대청호보전운동본부를 포함한 민·관·학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현장중심의 참여활동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지원과 지도를 기대해 본다.

대청호는 500만 여명의 생명수라고 한다. 올 한해도 작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대청호를 보전하는데 작은 역할이지만 기쁜 마음으로 활동할 생각이다. 우리 마을 앞 하천을 지키는데 주인의식을 가지고 참여할 각오를 새겨보는 새해 아침이다.

글 이강혁 대청호유역하천센터 국장

2021년에 달라지는 환경 정책 및 제도 알아보기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19 대유행이 새해에도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일회용품, 플라스틱 등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환경문제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2021년부터 새롭게 변화하는 환경정책 및 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주요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새해에는 지구를 지키기 위해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전 국민이 함께 힘쓰는 한해가 되길 바란다.

1.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행

2020년 12월 25일부터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국내 고품질 재생원료 시장 육성을 위한 조치로 현재는 공동주택에서 먼저 시행되고 있다. 2021년 12월 25일부터는 단독주택까지 확대된다. 투명 페트병은 병이 투명한 색이고 생수, 음료 등이 들어 있었던 페트병을 의미한다. 분리배출 방법은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다음에 합착하여 뚜껑을 닫아서 배출하면 된다. 투명 페트병을 다른 플라스틱과 구분하여 분리수거 되도록 별도 수거함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2.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이 쉽도록 유해물질의 사용제한을 강화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 전기·전자제품에 제습기, 런닝머신 등23종을 추가하여 현행 26종에서 49종으로 확대된다. 전기·전자제품의 사용제한 유해물질 종류는 주로 플라스틱 가소제로 사용되는 프탈레이트계 유해물질 4종을 추가하여 강화하였다. 이는 2021년 1월 1일부터 제조 및 수입되는 제품에 적용되며, 프탈레이트 4종의 경우 2021년 7월 1일부터 제조 및 수입되는 제품에 적용된다.

3. 야생동물 수입·반입 허가 대상 확대

국민 안전을 위해 코로나19와 같은 인수공통감염병 등을 매개할 수 있는 야생동물의 국내 수입·반입 관리를 강화하였다. 수입·반입 허가 대상에 코로나 바이러스 등 인수공통감염병을 포함한 주요 야생동물 질병을 매개할 수 있는 야생동물을 추가하였다. 과일박쥐, 밍크 등이 추가되어 총 9,390종이 되었다. 또한 전문성의 보완을 위해 전문기관의 검토를 의무화 하였다. 종 판별은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질병 매개 여부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서 하게 된다.

4. 지하역사 초미세먼지 농도 실시간 측정·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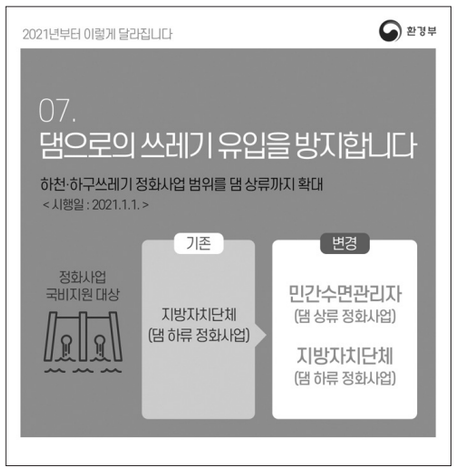
2021년 4월부터 전국 모든 지하역사 승강장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실시간으로 측정되어 공개된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지하역사의 소유자 등은 2021년 4월부터 초미세먼지 농도를 연속 측정함과 동시에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초미세먼지 측정기기 설치 의무를 위반하거나 결과를 공개하지 않으면 최대 5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 등 국민들은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www.inair.or.kr/info)'에서 지하역사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승강장이나 대합실 등에서도 초미세먼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설치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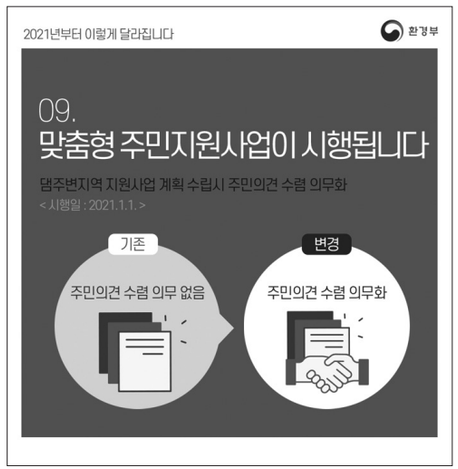
5.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 확대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의 범위를 댐 하류·하구 위주에서 댐 상류까지 확대하여 하류 지역으로 쓰레기가 유입되는 것을 상류지역에서 미리 예방할 계획이다. 그동안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은 하류로 내려온 쓰레기를 수거·처리하는 사업 위주로 추진되었다. 하지만 상류에서 발생한 쓰레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처리 책임과 환경오염 피해를 하류 지자체· 주민이 부담해야 한다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또한 댐에서는 수자원공사에서 수면관리자로서 댐 내 부유쓰레기 위주로 처리하였으나, 댐 상류 하천으로 유입된 쓰레기 수거는 미흡하였다. 2021년에는 쾌적한 하천을 만들기 위해 하천쓰레기의 사전 유입방지 및 상시 수거·처리체계를 완비한다는 계획이다. 쓰레기 차단막, 수거장비 확충사업 등을 통해 쓰레기가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주민, 지자체, 민간수면관리자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회적 기업에서 쓰레기를 상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6.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주민의견 수렴 절차 신설

2021년부터는 주민 참여를 통한 만족도 높은 사업 추진을 위해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 수렴이 의무화된다.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한국수자원공사)는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댐주변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동안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 수립 시 댐별로 주민간담회,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유관기관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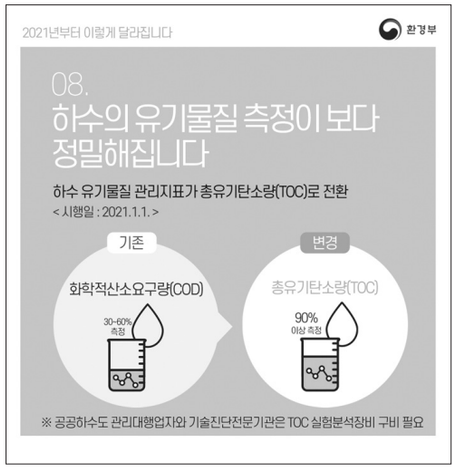
견을 수렴토록 하고 있으나, 법령 미비로 지역주민의 폭넓은 의견 수렴에는 한계가 있었다. 폭 넓은 주민 참여와 소통을 통한 계획수립을 위한 조치로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사업이 시행되길 바란다.

7. 상수도관망 관리가 강화됩니다.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신설,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제도 도입 등 상수도관망의 운영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신설된다. 상수도 관망관리를 잘 하는 것은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매우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 상수도 관망의 전문적 운영·관리를 대행하는 업(業) 제도가 신설 되어 전문기관에 의한 관망 일부 또는 전체의 운영·관리 대행 등 체계적 시설 관리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또한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제도가 도입되어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상수도관망시설 관리· 운영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시행일은 2021년 4월 1일이다.

8. 반도체·알코올음료 제조업 등에 대한 통합환경관리제도 적용

환경오염시설 관련 10개 인허가를 하나의 허가로 통합하는 통합환경관리제도가 2021년부터 △알코올음료 제조업,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 △섬유제품 염색·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플라스틱 제조업, △반도체 제조업,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 6개 업종에까지 적용된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인·허가 절차는 간소화하되, 업종별 특성과 주변 환경 등을 개별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기준을 적용하는 기업과 국민 모두에게 합리적인 제도이다. 2017년에 처음 시작된 통합환경관리제도를 2021년까지 반도체, 알코올음료, 자동차부품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19개 업종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9. 하수 유기물질 관리지표 전환

하수 유기물질 관리지표가 기존의 화학적산소요구량(COD)에서 총유기탄소량(TOC)으로 전환된다. 기존 화학적산소요구량 기준은 난분해성 유기물질을 포함한 전체 유기물질 측정에 한계가 있었다. 2021년 1월 1일부터 공공하수처리시설과 분뇨처리시설에 대한 방류수수질기준에 총유기탄소량(TOC) 기준이 적용되며, 이에 따라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관리대행업자와 공공하수도 관리상태를 점검하는 기술진단전문기관은 총유기탄소량(TOC) 실험분석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참고자료 :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대한민국 정부(기획재정부)〉

글 이강혁 대청호유역하천센터 국장

대청호유역하천센터의 2020년을 돌아보며

2020년 활동 평가 및 2021년 활동 방향

2020년은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한 해였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처음 겪어보는 감염병이라는 어려움은 다양한 사회활동에도 많은 어려움과 제약을 주고 있다. 대청호보전운동본부의 다양한 사업들도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마을 주민들과 하는 환경교육 등은 어쩔 수 없이 취소될 수밖에 없었고 워크샵, 토론회, 회의 등을 진행하는데도 제약이 많았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지난 한 해 동안 금강과 대청호의 수질과 생태계 보전을 위해 많은 분들이 노력해왔다. 대청호보전운동본부의 부설기관인 대청호유역하천센터도 대청

호 상류지역에서 주민들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2020년에도 각 지역 하천감시단의 자발적 활동이 있었다. 금산, 대전, 무주, 보은, 영동, 옥천, 청주에서 119명의 하천감시단이 매월 하천감시 및 조사활동을 진행하였다. 하천감시단의 활동은 보수가 거의 없는 자발성에 기초한 자원봉사 활동에 가깝다. 하천으로 자주 나가서 하천감시 및 계도활동을 하는 감시단들도 있고, 하천변에 버려진 쓰레기를 직접 수거하기도 하고 면사무소 등에 수거처리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하천감시단의 이름에 맞게 자발적으로 열심히 활동해주신 분들이 있기에 그 이름이 더욱 빛난 한 해가 되었다.

하천감시단 교육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추진되지 못하였다. 매년 3월에는 하천감시단 발대식이 열려서 한 해 동안의 활동을 결의하고 하천감시조사활동 방법 등을 교육하는 등의 시간을 갖고 있지만 지난해는 개최하지 못하였다. 또한 지역별로 진행하는 하천감시단 교육, 하반기의 하천감시단 전체교육도 모두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 8월에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진 시기에 지역별로 순회하며 하천감시단 간담회를 진행할 수 있었다. 하천감시단 간담회를 통해 더 효율적인 하천감시조사활동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나눌 수 있었다.

지난해에는 곳곳에 적치되어 있는 가축분뇨에 대한 조사 및 홍보물 배포, 홍보현판 설치, 방치된 축분 비닐 덮기 등을 진행하였다. 가축분뇨를 잘 관리하지 못하면 비가 올 때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오염원이 유입되어 대청호에 녹조가 발생하는 등 맑은 하천과 호소를 만들어 가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 사업은 가축분뇨를 올바르게 관리하는 것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축분 등에 비닐을 덮어서 중장기적으로 가축분뇨로 인한 오염원 유입을 줄이고자 추진되었다.

비닐 덮기는 한 곳에 오래 방치된 가축분뇨, 한 장소에 모아놓고 여러 경작지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가축분뇨 등에 진행하였다. 경작지에 쌓여 있는 밭갈이 예정인 가축분뇨에는 비닐을 덮지 않고 비가 오기 전에 빠르게 밭갈이 해 줄 것을 홍보하였다. 그리고 가축분뇨 적정관리 홍보물을 주민들에게 배포하고 홍보현판을 가축분뇨가 적치된 곳에 설치하여 홍보하였다. 홍보현판을 설치하고 나서 추후 다시 확인한 결과 축분주가 홍보현판을 보고 스스로 비닐을 덮은 경우도 여러 사례가 있었다. 지난 한 해 동안 홍보사례 28건, 비닐 덮기 39건을 진행하였다.

지난해에도 대청호 유역의 마을주민들과 함께 '대청호 유역 쓰레기 없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였다. 올해 대상마을로 선정된 마을은 보은군 보은읍 성족리, 청주시 문의면 마동리이다. 두 마을 모두 마을 이장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의지가 꽤 높은 마을이었다. 각 마을에서 하천정화활동 및 마을 쓰레기 분리수거 등을 을 2차례 실시하였다. 마을 주민들이 하천으로 들어가서 직접 하천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열심히 활동하였다. 안타깝게도 주민환경교육은 코로나19에 대한 우려 속에 진행되지 못하고 홍보물을 배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밖에 없었다. 마을 정비사업은 마을 내에 쓰레기가 상습적으로 투기되는 곳이나 경작해서는 안 되는 곳에 무단으로 경작이 되는 곳을 정리하고 나무나 꽃 등을 심는 사업이다. 보은 성족리의 경우 마을 버스정류장 등에 쓰레기가 자주 투기되어 문제가 되었는데 이 부분을 정리하고 화분을 배치하여 화단으로 조정하였고, 청주 마동리는 무단 경작이 되기도 하고 폐비닐 등이 종종 투기되는 곳을 정리하여 꽃나무 등을 심어 작은 공원으로 만들었다. 두 마을 모두 주민들의 적극적이 참여로 사업이 진행되어 주민들이 좋아했고 의미가 있었다.

2017년부터 옥천군 동이면, 영동군 용산면, 무주군 부남면 실시되었던 폐농약 수거처리 시범사업은 지난해에는 추진되지 못하였다. 면단위 규모로 추진되고 면의 모든 마을들이 참여하는 사업인데 예산이 미확보 되어 추진되지 못해 매우 안타까웠다. 올해는 꼭 추진되었으면 한다.

2021년 새해에는 그동안 추진해왔던 하천감시조사활동, 다양한 환경교육, 마을주민들과 함께하는 주민참여형 실천활동을 더욱 열심히 추진할 것이다. 물론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면서 효율적으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방법을 개발하여 추진할 것이다. 2021년에도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더 활발한 활동으로 맑은 금강과 대청호를 만드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

글 임정미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정책국장

깨끗한 서화천을 위해 열심히 발로 뛴 한 해

서화천 유역 거버넌스의 성과와 과제

금강수계관리위원회 3년차 연구과제로 운영된 '2020 서화천유역 주민참여형 수질개선 거버넌스' 활동은 기존의 구상대로 4명의 지역주민환경리더, 8명의 지역주민 하천모니터링단, 2명의 과제별 담당연구원, 단위사업 실무총괄연구원 및 책임연구원 등 15명의 연구원이 맡은 바 역할을 수행했다.

지역주민들로 100% 구성된 환경리더들은 지역환경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점을 최대한 살려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 마을환경개선을 위한 주민들의 진솔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었다. 그러한 노력이 주민들의 활동참여로 이어지는 결과도 낳으면서 마을환경이 개선되는데 일익을 담당했다.

활동영역이 서화천 발원지인 금산 추부면 추풍천에서 옥천군 군서면의 서화천을 거쳐 옥천읍 금구천과 만나 군북면 추소리 대청호변까지 확대 운영되었으며, 환경리더와 함께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마을하천모니터링단들의 조사 및 실천활동으로 수환경이 개선되는데 큰 역할을 수행했다.

매주 목요일마다 진행된 하천조사활동을 통해 기본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마을하천에 상습적인 소각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소각부유물을 현장에서 원상복구하는 노력이 중점과제로 강화되되면서 총 8개 지점에 총 160개의 불법소각근절을 위한 홍보푯말을 설치하면서 주민계도 및 원상복구활동을 진행한 결과 71곳에 홍보푯말이 남아있으며 그중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치운 곳은 7곳(9.8%), 주민들과 함께 공동원상복구활동후 현재까지 재소각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지점이 32곳(45%)이었다.

처음 홍보푯말을 부착하면서 훼손된 지점이 늘어만 갈때 속상해하면서도 서로를 격려하며 꾸준히 홍보계도활동을 지속한 결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치우는 사례와 재소각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 지점이 늘어날때마다 보람과 희망을 표현하며 함박웃음을 보이던 모니터링단들의 경쾌한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다.

조사활동에만 그치지 않고 오염원 저감을 위한 실천활동을 병행하면서 주민의식개선과 환경사랑실천의지를 북돋우는 계기를 마련함은 물론 80kg마대 620개 이상(약50톤)의 소각재를 처리수거하는 등 실제 대청호 수질개선활동에 기여했다.

더불어 농토 중심의 적정한 양분관리교육, 친환경농업교육과 실천활동을 병행 추친했던 농업폐기물적정관리시범마을 2곳을 선정 운영하면서 농업비점오염원 저감사례를 만들었고, 50인이하 거주하는 군북면 막지리마을 생활하수가 100여m앞 대청호로 직접 흘러드는 환경을 고려하여 둠벙을 설치, 수생식물에 갇히고 걸려진 후 자연증발되거나 남겨진 소량의 하수가 대청호로 유입되도록 하는 자연정화시스템을 구축하고 주민들이 직접 관리하는 사례를 만들기도 했다. 그동안 실천활동에 참여했던 마을포함 총 10개마을과 교육 및 정화활동으로 약 45톤 이상의 오염원을 수거하기도 했다.

또한 쓰레기 상습투기지역에서 9차례 민관공동 정화활동을 펼치면서 약 1천900톤(산과 하천바닥에 매립된 대형쓰레기 수거 포함) 이상의 쓰레기 수거에 앞장서는 등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약 2천톤가량의 쓰레기를 정리하면서 주민의식개선은 물론 대청호수질개선에 한 몫을 했다는 평을 얻기도 했다.

“우리마을에 타지사람 일곱여덟명은 꼭 찾아와서 함께 정화활동도 하고 교육도 하면서 천연비누랑 천연주방세제 만드는 법까지 알려주고 만들어서 나눠주던 대청호식구들이 계속 생각난다”는 자모리의 한 주민은 “주민교육도 정화활동도 꾸준하게 할 수 있게 마을지원시스템을 멈추지 않으면 좋겠다”며 무엇이든 단기간 반짝 하다가 중단하는 지원사업에 일침을 놓는다.

신축년 부지런한 하얀소의 해, 2021년 서화천에 남겨진 과제는 매우 많다. 서화천 상류지점인 금산 추부면 추풍천의 환경개선에 대한 주민의지를 불태웠다면 이제는 적극적인 행정력이 동반되어야 할 시점이다. 그것을 위해 민관협력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이 더욱 중요하겠다.

대청호에 합류되기 이전 서화천의 중하류지점의 경우 각 마을마다 축산업이 성행하는 축산계 오염원, 농토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토지계 오염원, 옥천읍내를 관통하는 금구천의 우수토실을 포함한 하수관리시스템의 보완 등 남겨진 과제가 많은 만큼 이해관계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좁히고 환경개선을 위한 지혜를 모으고 실천에 함께 나서기를 기대한다.

글 김재곤 대청호보전운동본부 팀장

맑은 대청호를 위한 지역의 노력들

지역 네트워크 2020년 사업 요약 소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2020년입니다. 2020년대 대청호보전운동본부는 “소유역거버넌스의 전면 추진을 통한 주민에 의한 유역관리”라는 사업기조를 통해 네트워크별 소유역거버넌스 1개 이상 구성 추진을 목표 활동해왔습니다. 그러면 대청호보전운동본부 8개 네트워크에서는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청호 상류지역 네트워크인 **무주네트워크**에서는 대청호 수질개선을 위한 마을 주민생활개선 운동전개, 지역주민 교육을 통한 환경개선 및 수질개선 전개, 마을에 흐르는 도랑을 건강한 생태환경으로 복원해 생명력을 부여, 대청호 수질 보전을 위하여 마을 주민과 협력하여 오염원을 줄일 수 있는 실천운동 전개를 목표로 회원마을 가꾸기 사업, 하장백마을에서 하는 옛도랑복원사업, 가당천 소유역 거버넌스 겸 해서 추진하는 도랑살리기 주민실천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 마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 각종분리수거함설치, 외래풀제거활동, 하천정화활동, 수목식재, 환경교육, 천연제품만들기, 가시박제거 등 다양한 실천활동을 수행했습니다. 2021년 아직 코로나 19가 종식되지 않아 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데요.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공공기관과 전문가가 함께하는 소유역거버넌스 협의체 구성을 통해 더욱 내실 있는 사업진행이 예상됩니다.

금산네트워크에서는 하천 중 오염도가 높은 하천인 추풍천 소유역거버넌스 추진과 회원단체 및 마을과의 유기적 활동 확대를 사업목표로 2020년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금산고등학교 생명과학환경동아리 SKYPE에서는 수생태체험학습으로 천내습지 중심으로 습지생물과 가시박생태연구활동, 정심회에서는 추풍천 일원 가시박제거활동, 자연보호협회에서는 하천정화활동을 하였고 9개 회원마을과 추풍천 유역 2개마을에서는 깨끗한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천연비누만들기 및 쓰레기 봉투 배포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계획에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참여단체와 회원마을에서 적극적인 참여로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2021년에는 본격적으로 추풍천 소유역거버넌스 협의체 구성을 현실화하여 소유역거버넌스 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은네트워크에서는 회원마을의 주민참여형 수질개선 실천운동 강화라는 사업목표로 2020년 활동했습니다. 회인천 소유역 물환경 거버넌스 사업(분저리 마을, 산수리마을), 선진지견학, 환경교육을 진행했습니다. 회남면 분저리 마을에서는 쓰레기 재활용장 만들기, 환경교육 및 마을 전화활동 등의 활동을 했으며, 산수리 마을에

보은네트워크

서는 환경교육 및 마을 정화활동, 현판 및 재활용수거함설치, 버드나무 제거작업 등의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수리 마을은 2020년 새롭게 대청호보전운동본부 회원마을이 되어 앞으로 더욱 많은 실천활동이 이루어 질 것이라 기대됩니다. 선진지 견학은 부여궁남지로 갔는데요. 환경보존 사례를 직접 체험하고 회원들간의 유대관계를 높였습니다. 환경교육은 천연에센스만들기, 스킨만들기, 샴푸만들기, 아이스크림만들기 등 체험을 중심으로 진행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2020년 활동을 바탕으로 소유역 거버넌스 활동을 더욱 구체화하여 수질개선을 위한 다양한 실천활동이 기대됩니다.

옥천네트워크는 회원단체, 회원마을 참여도 강화, 회원단체의 직접적인 관리로 금구천 및 안내면 정화활동, 대청호로 직유입되는 안남천협의회를 통한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유도를 사업목표로 2020년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2020년 진행한사업으로는 안내환경사랑실천단이 중신으로 진행한 마을가꾸기, 환경사랑모임이 진행한 맑은 금구천 만들기, 옥천네트워크 사무국에서 진행한 안남천협의회가 추진되었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대청호길 걷기 사업은 아쉽게도 코로나 19로 인해 취소되었습니다.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옥천 서대리 지역 정화활동과 안내면 일대 농약별 수거활동을 했습니다. “안내환경사랑실천단”의 적극적인 홍보로 마을 주민들의 협조와 주체적인 활동을 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맑은 금구천 만들기는 금구천 및 장령산 일대 정화활동을 통해 금구천이 깨끗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안남천협의회에서는 정화활동, 환경교육, 협의회 회의, 방치축분조사 활동을 하였고, 안남면 주민, 면행정복지센터, 전문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협의회 구성을 했습니다. 2021년에는 안남천협의회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고 효과적인 운영을 통해 소하천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 기대됩니다.

영동네트워크

영동네트워크는 금강 상류의 깨끗한 수질개선과 보전을 위해 함께 만들어가는 소유역거버넌스 추진을 위한 이해와 방향성에 대한 교육과 지속적인 하천정화활동으로 물의 소중함을 알리는 목적으로 2020년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마을하천 가꾸기, 찾아가는 환경음악회, 환경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쉽게도 코로나 19로 인해 선진지견학과 난계축제부스에서

진행하는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알리기 사업은 취소가 되었습니다. 마을 하천가꾸기 사업은 영동 한성리, 회포리, 영동읍, 구강리 등 마을주민들과 함께 하천 정화활동 및 환경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찾아가는 환경음악회는 마을로 직접 찾아가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마을 하천관리, 보전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하였습니다. 2020년에 코로나 19로 인해 사업 진행이 어려웠던 만큼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마을 실천활동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대청호 하류 지역 네트워크인 대전, 청주, 천안아산네트워크 2020년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먼저 **대전네트워크**는 주원천 모니터링을 통한 오염원 조사, 소유역거버넌스 구축준비, 친환경마을만들기, 주원천 알리기, 대청호농산물보따리 회원 확대 및 직거래 활성화라는 목표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주원천 모니터링 활동을 바탕으로 한 지도제작, 대청호유역마을 친환경만들기, 원천알리기 캠페인 및 정화활동, 대청호농산물 보따리 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주민참여형 소유역 거버넌스 구축은 코로나 19로 적당한 시기를 놓쳐 2021년에 구축하는 것으로 기약하게 되었습니다. 주원천 조사 및 지도제작은 8차례 모니터링을 통해 주원천 생태지도를 발간하여 식장산부터 신상동까지 주원천 전 구간 수록하는 성과를 내었습니다. 친환경마을 만들기는 주산동에서 2차례 하천정화활동과 4차례 환경교육을 통해 주민들의 환경의식을 고취시켰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주원천 알리기 캠페인은 오프라인 4회 홍보활동과 온라인 캠페인을 통해 대청호로 직유입되는 하천인 주원천을 효과적으로 알리는 홍보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대청호농산물보따리 사업은 12차례 발송과 함께 친환경쌀이벤트, 고추장만들기, 송촌동 직거래장터 운영을 통해 대청호 지역의 농산물을 알리는데 큰 홍보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천안아산네트워크는 병천천 소유역거버너스 구축을 통한 주민 실천활동 전개 및 물 공동체 문화 조성과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한 정책 제언을 통해 친환경 물 순환 도시 조성이라는 사업 목표로 2020년 네트워크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대청호 하류 소유역 거버넌스 구성과 교류, 소유역 거버넌스를 통한 맑은물 환경 종성 실천활동, 주민환경교육 및 홍보활도, 수질오염예방을 위한 하천감시활동, 물환경 프로그램 개발, 수환경 생태조사 및 사회분야 특성조사 활동을 하였습니다. 대청호 하류 소유역 거버넌스는 지역의 시민단체와 마을 주민들과 함께 맑은 물 환경조성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4차례실천활동을 통해 정화활동과 환경교육 자전거 캠페인을 실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환경교육 및 홍보활동 2회, 수질오염예방을 위한 하천감시활동 8회를 하였고, 전문가, 주민들과 함께 물환경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수환경 생태조사 및 사회분야 특성조사 활동을 통해 병천천의 하천 건강성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 자료를 만들어 지역 내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2020년에 소유역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왕성한 활동을 한 만큼 2021년에도 소유역거버넌스를 통해 주민, 시민사회, 공공기관과 능동적으로 소통하고 수질개선을 위해 더욱 활발한 활동으로 효과적인 사업성과를 얻을 전망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주네트워크**는 대청호 상류하천 소유역협의회 안정화 및 주민하천관리체계 확대·구축, 도시단체(하류지역)와 농촌마을(상류지역) 간 교류·협력 활성화, 전문가·지자체 협의체계(소통, 참여) 구축으로 물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현안 대응 및 해결을 사업목표로 2020년 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다만 청주지역 코로나 19 확산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소유역 협의회 활성화 및 운영, 주민참여하천관리활동, 대청호 맑은물 한마당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도랑가꾸기 행사와 하천생태문화탐방은 코로나 19로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소유역협의회는 2차례 회의를 하였고 주민참여하천관리활동은 “문의권역 주민하천관리단 발대식을 거쳐 하천관리단 활동 6차례 진행되었습니다. 주민하천관리단은 오염원조사, 정화활동, 교육, 홍보, 감시활동을 통해 마을 하천의 중요성을 알리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대청호 맑은물 한마당은 문의권역 6개 마을 주민하천관리단과 주민 100여명이 함께 정화활동을 실시하는 행사로 민, 관 협력을 통한 하천관리체계 실현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올해 아쉬웠던 부분을 보완하면서 최대한 코로나 19 예방을 하며 할 수 있는 실천활동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 대청호보전운동본부 8개 네트워크 활동을 알아보았습니다. 대청호에는 직간접적으로 유입되는 하천들이 많습니다. 대전 충남 충북 세종 400만 인구의 식수원인 대청호를 후손들에게 보전하려면 많은 지역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비점오염원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실천 활동을 통해 수질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19는 2020년에 이어서 2021년에도 종식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수질개선을 위해 노력해온 8개 네트워크 활동가 분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2021년에도 어려움이 있지만 대청호 수질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리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청주네트워크

옥천군 안남면이 태양광사업 때문에 위험합니다

고령화와 도시화로 인구가 줄어 소멸로 가는 우리 농촌. 지자체는 사람을 모으려 지역 자원의 부가가치를 활용한 산업 생태계 조성과 생활 복지를 내세워 지역의 존립을 도모한다. 도시 빈부 격차는 커지고 사회 환경은 나아지지 않는데도, 도시로의 발걸음은 그치질 않는다.

그렇다면 도시는 과연 희망을 담보한 소돔성인가, 절규하는 자들이 탑승하려는 방주인가,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민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정부 정책에 국민은 각자도생해 활로를 찾아 도시 탈출을 꿈꾼다. 우리가 꿈꾸는 농촌, 오라 하지 않아도 찾아갈 농촌, 자녀에게 고향이라는 선물을 남기고픈 농촌. 과연 어디에 있을까.

'사람 냄새'나는 마을

있다. 여기 갓난 아이의 울음소리도 듣기 어려워진 농촌에 재잘대는 아이들이 늘어나는 땅이 있다. 남녀노소 공동체를 이뤄 재미나게 사는 동네. 삭막한 도시생활에 영혼을 빼앗기고 내려온 청년들도 있고, 정년 후 고단한 몸 쉴 작정으로 찾아온 장년들도 있다. 그리고 그렇게 희망을 꿈꾸며 온 사람들에게 텃새 없이, 고향 찾은 자식 품듯한 주민들이 있는 곳, 바로 '충북 옥천군 안남면'이다.

옥천군 안남면은 금강의 광역상수원인 대청호 수변에 자리하기 때문에, 주민의 노력과 실천에 힘입어 청정의 자연환경이 잘 유지되고 있다. 안남면 7개 리 가운데 연주리 배바우마을은 매년 제비가 신작로에 둥지를 튼다. 제비의 분변이 귀찮을 만도 하지만 주민들은 생명과의 공생을 당연히 알고 귀히 여길 줄 아니 흥부마을인 셈이다.

종미리 미산마을은 예능프로그램 1박 2일 팀이 자전거로 향수백리길을 달리다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 노랫가사말 같은 금강가에서 캠핑을 하면서 전국에 소개되었다. 지수리 잔다리마을은 물포럼 도랑살리기 사업이 초창기 삽을 뜬 곳으로, 핏줄 실개천부터 건강해야 금강 대동맥이 붉고 건강하게 흘러간다며 모범적인 민관협력을 이뤄낸 마을이다.

도덕리 덕실마을은 금강트레킹 12년 내내 금강변 최고의 청정 밥상을 제공해 밥 먹고 싶은 마을로 으뜸 자리를 놓치지 않았다. 마을 산물 식재료로 도심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새롭고 다채로운 조리법을 선보이면서, 방문자는 먹고 사감으로써 지역주민에게 이익을 안겨주는 생태관광을 표방했다.

무엇보다 안남면의 자랑은 둔주봉에 올라 거꾸로 된 한반도 지형을 보는 것이다. 옥천 8경의 1경이자, 금강의 최고 조망지로 손꼽히는 둔주봉에서 하산하면 안남면 사람들이 재현하는 옛 시골장터를 경험할 수 있다.

대청호 상류 청정 농산물들이 집산하면 도시민의 장바구니는 구매한 물건보다 얻어가는 물건이 더 많을 만큼 인심이 훈훈하다.

안남면의 격을 한층 높이는 진정한 자랑은 세대 간 격차를 줄이고자 소통이 활성화된 공동체이다. 아이들과 노인들을 위한 돌봄 활동, 도서관과 취미 등 어울림 활동, 주기적인 주민협의와 타지역이 부러워하는 어르신들의 리더십 등 최근에는 대학생 농활의 복원, 백년 생태박물관을 꿈꾸는 마을만들기 등 헤아릴 수 없다.

옥천군의 대다수 지역은 대청호 상류에 자리했다는 원죄로 인해 불편을 감내하면서도, 주어진 규제 환경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살려 광역상수원으로서 안정적인 수질을 공급하는 데 일조하는 금강동네 사람들인 셈이다.

삶이 퍽퍽할수록 지속가능한 삶이라는 화두는 도시와 농어촌에 공동체 운동이 들풀처럼 일어나길 기대하고 있다. 나 혼자가 아닌, 함께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도 모자랄 판국이다.

에너지보다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사람

그런데 그나마 잘 익어 곰삭은 착한 공동체를 화나게 하는 일이 발생했다. 바로 안남면 둔주봉에서 내려다보면 번쩍이며 산야를 덮게 될 대규모 태양광 사업이다. 태양광 사업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대규모 태양광 단지 면적은 마을의 얼굴이 달라지는 사업이다. 미래세대에 물려주어야 할 자연유산이 마을공동체와의 협의 없이 외지인의 사적 이익에 의해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주민을 더 답답하게 하는 것은 첫 삽을 뜨기 직전에야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없음이라는 행정 결론으로 주민들이 어딘가에 읍소하고 항변할 수 있는 싹마저 잘라 버린 것이다.

사업의 효과성과 목적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입지 선정, 관행적인 편법 인허가 절차의 부당성 등 주민들의 의견은 많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옥천군이 무엇 때문에 한 개인의 대규모 태양광사업과 착한 공동체를 뒤흔들어 맞바꿈 했느냐 하는 것이다. 그것이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것인가 의문이 든다.

안남면 주민 공동체는 잘 숙성되어 내리내리 맛을 보장하는 종지간장과 같다. 시간이 만든 종지간장은 쉽게 만들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종지간장 한 술이 맛 좋은 간장 한 독을 만든다. 주민 공동체와 어우러져 역사를 같이한 자연환경은 항아리를 담은 장독대이다. 햇살, 바람, 습기와 사람의 행주질이 만든 결정체인 것이다.

대규모 태양광 시설로 인해, 그 햇살과 바람과 습기가 결을 달리하고, 행주질이 거칠어질 때, 종지간장의 맛이 영원할 리 만무하다. 신산업 육성 좋다지만, 옥천군 안남면에서 에너지보다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종지간장은 그렇게 쉽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마이뉴스】 2021. 1. 2 최수경 시민기자

댐 홍수터, 주민참여 생태공간으로…대청댐 '수변생태벨트' 완공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는 최근 '대청댐 홍수터 수변생태벨트 시범사업'을 마무리 짓고, 댐 홍수터를 친환경 수변완충지대로 복원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댐 홍수터는 집중호우로 수위가 높아질 때 상류 지역에 물을 저장하기 위한 토지를 말한다. 그러나 이곳에 무단으로 건축물 등이 들어서고, 무단 경작과 농업폐기물이 투기되는 등 댐 수질 관리와 수생태계 보전에 어려움을 끼쳐왔다.

이번 시범사업은 이 같은 댐 운영 제약사항을 해소하고, 홍수터를 자연형 수변완충지대로 복원해 기존의 수변구역 매수토지와 연계하는 최초의 통합형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이다.

사업대상지는 대청댐 상류 서화천 유역의 충북 옥천군 이백리와 지오리의 홍수터 2곳이다. 전체 면적은 약 6만 2000㎡로, 축구장 9개 정도의 면적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여기에 수질 정화를 위한 정화림과 생태습지, 지역주민의 소득 창출과 연계할 수 있는 고로쇠나무 등 약용나무로 조성되는 소득작물림 구간, 생태관찰·탐방로 등을 조성했다.

이를 통해 댐 홍수터 본연의 홍수조절기능에 더해 수질·수생태계 보전기능을 갖추고, 비홍수기에는 주민들의 휴식공간이자 생태 문화공간으로도 복합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도 대청호변의 대표적인 생태관광구간인 '대청호 오백리길'과 연계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금강유역환경청과 협력해 금강 수계의 대청댐과 용담댐 홍수터에 대한 추가 사업과 수변생태벨트 활성화 방안 연구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금강 외에 다른 수계의 댐 홍수터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관리방안 수립과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그간 활용되지 않던 댐 홍수터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친환경적인 생태문화 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하게 됐다"면서 "우리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마중물로 삼아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물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1】 2020. 12. 13 권혁준 기자

대청이가 알려주는 '대청호기초' 소식

대전광역시

대전시 맑은 물 정책, 갑천유역 비점오염원 관리 계획 수립

[대전시(시장 허태정)는 갑천유역 중 시가지역 41.277㎢에 대해 '갑천유역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환경부 지정·고시(2017년 6월)됨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갑천유역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시행계획'을 마련했다고 지난해 12월 21일 밝혔다.

비점오염원은 도로, 공사장 등 불특정장소에서 발생하여, 토지표면에 축적된 영양염류, 유기물, 중금속 등의 오염물질이 축적돼 강우시 강우유출수와 함께 유출되고 수질을 오염시키는 배출원을 말한다.

시는 2030년까지 갑천과 유등천 합류후 지점인 갑천교(갑천4)지점의 총인(T-P)을 국가에서 정한 하천 생활환경 기준의 좋은물 기준 II등급 이하로 유지되도록 관리목표를 설정하였다.

이와 함께, 지난해 4월부터 '대전광역시 갑천유역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시행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 18일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관리대책 시행계획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구조적 관리대책인 불투수면 관리를 위한 그린빗물인프라 사업과 합류식 하수관거의 월류수 저류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비구조적 관리대책으로는 시민교육 홍보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운영과 도로청소 확대 등 비점오염원관리 체계를 마련했으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 사업들은 도시화로 증가된 불투수면을 투수성 포장으로 교체하고 빗물의 침투시설 설치를 확대함으로써 하천으로 직접 유출되는 빗물과 먼지 등이 지하로 잘 스며들게 돼 수질오염물질의 유출을 줄일 수 있다.

박정규 대전시 맑은물정책과장은 "비점오염원 관리대책의 체계적시행은 건전한 물순환 기능 회복과 앞으로 있을 물 부족 문제 해결은 물론 수질오염 예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붉은부리흰죽지 대전 최초 확인

대전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최정우 김세정 김진화)은 지난해 12월 23일 갑천 탑립돌보에서 시민제보를 통해 붉은부리흰죽지를 대전 최초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붉은부리흰죽지는 국내 희귀종으로 1998년 중랑천에서 최초로 확인된 이후 매우 드물게 월동이 확인되는 미조(길을 잃은새)로 서울의 중랑천·주남·시화호 등지에서 확인된 것이 국내 관찰기록의 전부이며, 이렇게 희귀하게 관찰되는 종이 대전에서는 최초로 확인 된 것이다.

또한 붉은부리흰죽지는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에 관심종으로 등재되어 보호 받고 있으며, 시베리아에서 여름을 보내고 남아메리카까지 이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전의 3대 하천을 중심으로 매년 희귀조류 등이 꾸준히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붉은부리흰죽지의 관찰로 3대 하천이 단순히 도시하천의 이수와 친수기능 뿐만 아니라 생태적 기능도 확인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전시(시장 허태정)는 탑립돌보를 2020년 아름다운 자연생태 7선에 선정하기도 했으며, 매년 대전에서는 가장 많은 겨울철새가 찾아오는 원촌교와 탑립돌보 구간의 생태적 가치를 평가한 것인데, 붉은부리흰죽지의 월동이 확인되면서 이런 선정의 이유가 입증된 것이다.

탑립돌보의 경우 현재 자연적인 하중도와 돌보가 무너지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바위들이 여울과 쉼터를 만들고 있으며, 현재대로 유지된다면 대전시민들이 가장 쉽게 접근하여 새들을 만날 수 있는 도심 탐조지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대전환경운동연합은 탑립돌보의 자연생태 7선의 이름뿐만 아니라 멸종위기종과 희귀종이 매년 찾아오는 탑립돌보에 상응하는 보전계획을 세울 계획이며, 탑립돌보가 보전될 수 있도록 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것을 대전시에 제안할 예정이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환경운동연합 가로수길 산단 조성 검토 중단 촉구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 12월 28일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시는 가로수길 산업단지 조성 타당성 검토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청주시가 강서, 휴암동 일대에 80만㎡ 규모의 산업단지를 추진하기 위해 6개 관련 부서에서 법적문제를 검토하고 있고 청주시의 사업지분 참여 판단을 위해 충북연구원에 타당성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산업단지 예정 부지는 청주가로수길과 강서동과 비하동 주거지역, 강서초등학교 등의 바로 옆"이라며 무분별한 산단 조성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현재 청주시가 운영중이거나 조성,계획중인 산업단지가 21개에 달한다"며 "무분별한 산단 조성을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산업단지로 인해 폭발사고, 불산누출 사고 등이 끊이지 않고 있고 유해화학물질, 미세먼지, 온실가스 등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청주시민들이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은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충북도와 청주시도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했다"며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나무와 숲을 더 조성해도 부족할 판에 나무와 숲을 없애고 온실가스, 미세먼지, 화학물질 등을 배출하는 산업단지를 추가로 조성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청주시는 지난해 5월 강서도시첨단산업단지(SPC법인)로부터 바이오, 지식기반 산업 중심의 산업단지 조성 의향서를 접수받아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

대청호와 함께하는 단체들

무주네트워크

사무국 / 무주 4-H본부

무주군자연보호협의회, 무주 4-H본부, 무주군친환경농업반딧골연합회, 무주환경사랑, 무주푸른꿈고등학교, 반딧불산나물친환경영농조합법인, 부남면 가당리 하평마을, 부남면 가당리 상평마을, 부남면 가당리 가정마을, 부남면 굴암리 상굴암, 부남면 굴암리 하굴암, 부남면 고창리, 무주읍 장백리, 안성면 덕산리, 설천면 기곡리, 무주읍 내동마을, 무주군

금산네트워크

사무국 / 사단법인 정심회

금산참여연대, 자연보호협의회 금산지부, 금산군작목별연구협의회, (사)정심회, 전국축협노동조합 금산지부, 전교조금산지회, 금산친환경농업인연합회, 금성면 의총리, 제원면 용화리, 제원면 명곡2리, 제원면 명곡3리, 제원면 신안리, 부리면 수통리, 부리면 어재리, 남일면 신정리, 남일면 황풍2리, 추부면 성당리, 제원면 저곡1리, 금산군

영동네트워크

사무국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영동지부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영동지부, 천모산유기영농조합, 한살림영동공동체생산자모임, 영동지역아동센터연합회, 양산면 봉곡리, 양산면 수두리, 학산면 지내리, 양강면 죽촌리, 심천면 고당2,3리, 양강면 구강리, 용산면 한석리, 황간면 회포리, 영동군

옥천네트워크

사무국 / 대청호주민연대

대청호주민연대, 옥천환경사랑모임, 옥천흙살림, 옥천군자연환경보호지도협의회, 옥천순환경제공동체, 옥천신문사, 안내환경사랑실천단, 옥천살림 영농조합법인, 옥천식생활교육네트워크, 영농조합법인 안남배바우공동체, 군북면 석호리, 군북면 항곡리, 동이면 석탄리, 청성면 합금리, 옥천군, 청성면 산계리, 청성면 고당리, 청산면 장위리, 안남면 도덕리

보은네트워크

사무국 / 보은지역아동센터연합회

보은사회복지협의회, 전교조 보은지부,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보은지부, 보은지역아동센터연합회, 회남면 분저리, 회남면 산수리, 회인면 부수2리, 내북면 두평리, 탄부면 임한리, 탄부면 상장2리, 마로면 기대리, 보은읍 성족리, 보은읍 종곡리, 보은군

대전네트워크

사무국 /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YWCA, 대전YMCA, 해병전우회대전시연합회, 대전녹색소비자연대, 마당극단 좋다, 한국잠수협회 대전지부, 동구 직동 찬샘마을, 동구 세천동, 동구 주산동, 대덕구 이현동, 대전시 동구, 대전시 대덕구, 대전로컬푸드라온아띠협동조합

청주네트워크

사무국 / 사)풀꿈환경재단

충북생명의숲,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청주CCC, 청주KYC, 청주YMCA, 청주YWCA, 청주산단환경발전협의회, 청주지역자활센터, 청주팔백리,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사)풀꿈환경재단, 문의면 구룡리, 문의면 노현리, 문의면 두모리, 문의면 묘암리, 현도면 시목2리, 문의면 괴곡리, 청주시

천안아산네트워크

사무국 /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KYC, 천안녹색소비자연대, 천안시사립작은도서관연합회, 불당대동다숲아파트 도시농부단, 천안시

■ 네트워크외 : K-water, 금강유역환경청,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 소모임 : 대청호해설사